

증권사, '밸류업 정책' 지원 사격... 이벤트·서비스 전략 펼쳐

밸류업 공시 시행 한 달 지났지만 코스피 상장사 참여율 0.52% 수준 참여한 7개사 중 3곳, 금융투자사 KB증권, 새 슬로건 내세운 이벤트 신한투자증권, 'MyPB 멤버스' 출시

정부 주도의 '기업가치 제고 공시(밸류업 공시)'가 본격화되면서 증권사들도 관련 이벤트·슬로건을 내놓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시 참여 자체는 저조한 가운데, 참여사 중 절반 가량이 금융투자사이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다트)에 따르면 '기업가치 제고 공시(밸류업 공시)'가 시행된 지 약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코스피 상장사 중 밸류업 공시를 낸 곳은 키움증권과 콜마홀딩스 2곳이며, 예고 공시한 곳은 KB금융, 우리금융지주, DB하이텍 등 3곳이다. 코스피 기준 밸류업 공시 참여율은 0.52%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코스피 상승을 위해 논의 중인 증권사 직원들 이미지.

수준인 것이다.

올해 상반기 정부 주도 '밸류업' 정책의 수혜를 받으면서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 관련주를 중심으로 코스피가 우상향 흐름을 보였다. 이에 따라 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증권사들의 브로커리지 수익도 확대됐다. 1분기 전체 증권사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21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16조5000억원 대비

29.7% 급증했다. 다만 기대에 못 미치는 밸류업 세부안이 발표되면서 다소 주춤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세부안에서 시장이 요구했던 기업에 대한 강제성이나 강력한 세제 혜택 등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이후 증권사들은 밸류업 정책을 지원하고자 각종 전략을 내놓고 있다. 최근 KB증권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

TS)에 'Again BUY KOREA' 전용관을 신설하고 '커져라 똑딱! Again BUY KOREA'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Again BUY KOREA'는 중장기 관점에서 저평가된 기업이나 우량 기업을 소개하며 국내 증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KB증권의 새 슬로건이다. 전용관에서는 KB증권 리서치본부에서 선정한 'Again BUY KOREA 종목'을 게재하고, 해당 종목 매수시 사용할 수 있는 국내주식 쿠폰을 제공한다.

KB증권 관계자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진배경과 자본시장 가치 제고의 필요성에 적극 동참한다"며 "한국 증시의 도약을 위해 기업과 투자자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증권회사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신한투자증권 역시 '한국증시 밸류업 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신한 MyPB 멤버스'를 출시했다. 해당 서비스는 디지털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투자자들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투자 결정을 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한투자증권은 "투자자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한국 증시 밸류업 지원을 위해 고객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밸류업 공시에 참여한 7개사(코스피·코스닥 총합) 중 3개사는 금융투자사다. 가장 먼저 움직임을 보였던 곳은 KB금융으로 예고공시를 냈으며, 실질적으로 본 공시를 가장 최초로 이행한 곳은 키움증권이다. 이외에도 코스닥 시장에서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밸류업 공시에 동참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상반기 증시 상승을 주도한 이슈는 밸류업이고, 가장 큰 수혜자로 증권사를 꼽을 수 있다"며 "증권사들도 밸류업이 중장기 정책임을 고려해 큰 바탕에서 전략을 펼치는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엔·달러 환율 160엔 돌파... 日 증시 3088만弗 순매도

아이셰어즈 20년 이상 미국채 엔화 헤지 TIGER 일본엔선물 ETF 등 매도세 170엔까지 전망... 통화정책 관망 필요

엔·달러 환율이 160엔을 돌파하는 등 엔화 약세가 지속되자 국내 투자자들이 일본 증시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30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일본 증시에서 3088만달러(약 427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이후 월 기준 첫 매도 우위를 보인 것이다.

국내 투자자들은 이 기간 동안 일본 증시에 상장된 미국장기채 상장지수펀드(ETF)를 가장 많이 매도했다. 가장

많이 매도한 상품은 '아이셰어즈 20년 이상 미국채 엔화 헤지' ETF로, 약 4671만5730달러(약 645억원)어치를 매도했다. 이 ETF는 미국의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 상승(금리 하락)에 따른 수익과 엔화 반등 시 환차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또 개인투자자들은 엔화에 베팅하는 국내 ETF도 팔아치웠다. 이달에 'TIGER 일본엔선물 ETF'를 약 13억원어치 순매도했다. 이 상품은 국내에서 엔화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ETF로 엔선물지수를 따른다. 최근 엔저 현상에 따라 이 ETF의 최근 3개월간 수익률은 -3.70%를 기록했다.

일본 증시 대표 지수인 닛케이225 지

수는 지난 3월 처음으로 4만선을 돌파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일확 개미들은 올 1~4월 매달 1억 달러가 넘는 일본 주식을 순매수한 바 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미국 고금리 국면이 지속되면서 엔화 가치가 끝도 없이 떨어진 데다 일본 증시가 박스권에 머물자 국내 투자자들이 일본 주식 매도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에선 엔·달러 환율이 160엔을 넘어 170엔까지 약세를 보일 것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 통화정책 변화를 관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과 일본 간 금리 차이로 금리가 높은 달러에 자금이 몰리며 엔화 가치가 추락하고 있는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와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은 모두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엔화 약세 심리가 쉽게 누그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일본 정부의 잇따른 구두 개입과 실제개입에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가 꺾이지 않은 가장 큰 원인은 미-일간 통화정책 차별화 현상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환시장 개입만으로 엔화 약세 심리를 진정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오는 7월 개최될 일본은행 통화정책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 혹은 양적완화 규모 축소와 같은 추가 긴축 조치 단행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



2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엔·달러 환율이 161.07엔에 거래되고 있다. /뉴스

증권사, '편리함' 앞세운 고객유치 활동

코스피 시장 활발... MTS·WTS 개선 키움증권, 플랫폼본부 신설 등 정비 토스증권·신한금융그룹, '원앱' 전략

젊은 주식투자자들이 늘어나고 거래량도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증권업계가 '편리함'을 앞세운 고객 유치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코스피 지수 평균과 거래대금은 각각 2668.75, 1357조2371억을 기록했다. 지난해 코스피 지수 평균이 2492.95, 거래대금이 1141조4149억을 감안 할 때 올해 코스피 시장이 지난해 보다 활발해 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증권사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웹트레이딩시스템(WTS)을 개편·개선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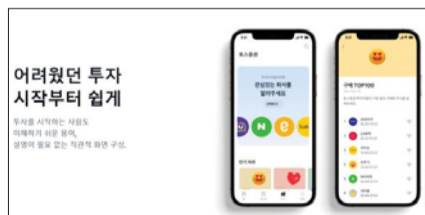
하던 MTS를 사용하는 고객들도 많지만, 새로운 MTS를 사용해 더 편리하게 증권 거래를 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며 "특히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젊은 고객들은 수탁수수료만큼이나 증권 거래 시 '편리한 증권 플랫폼'을 중요하게 여기기도 한다"고 말했다.

증권업계 리테일 강자로 불리는 키움증권도 7월 중으로 플랫폼본부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주식거래 플랫폼 '영웅문'을 포함한 플랫폼 정비에 나선다. 키움증권은 이 본부를 통해 MTS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플랫폼의 사용자 경험(UX)과 사용자 환경(UI)을 개선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정통증권사의 이러한 움직임을 '신흥 경쟁사'들을 견제하기 위한 변화로도 보고 있다. 특히 토스증권과 같이 '원앱(One-app)'을 앞세운 증권사 같은 경우는 고객들에게 편리함으로 인기를 끌며 신흥 강자의 반열에 올



'신한 슈퍼솔' 광고 /신한금융그룹



'토스증권' 광고 /토스

랐다. 간편함을 강조한 증권사들의 '원앱' 열풍은 이제 업계 전반의 대세이기도 하다.

이미 금융가에서도 신한금융그룹이 '슈퍼 솔(Super SOL)'을 선보이며 은행·증권·카드·라이프·저축은행 등 그룹사 5개 금융앱의 주요 기능을 통합한 원앱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SK증권, 국내 최초 'IFRS S2 보고서' 발간

(국제회계기준)

기후 관련 공시안 반영해 작성

SK증권이 국내 증권사 최초로 IFRS S2(국제회계기준) S2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IFRS 재단 산하의 ISSB 위원회(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지난해 6월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첫 국제 기준인 S1 '일반 공시 요구 사항'과 IFRS S2 '기후 관련 공시'를 확정 발표했다. ISSB 기준서는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에서 요구하는 공시 권고안에서 상당 부분 차용했으며, TCFD는 IFRS 재단에 흡수됐다.

이번 보고서는 기존 SK증권 TCFD 보고서의 기초를 잇되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안을 충분히 반영해 작성됐으며, 일부 내용은 TCFD 권고안을 반영했다. 또한, 지난해 9월에 발간된 두 번째 TCFD 보고서에서 계획으로 담았던 기후변화 관련 기회와 위험 요인에 대

한 정량적 분석 등에 대한 2023년 한 해 동안의 이행 현황을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바탕으로 녹색 경제 활동의 규모를 파악하고,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투자자산의 이행 및 물리적 리스크 노출도를 산출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보고한 점도 중요한 성과이다.

정준호 SK증권 대표이사는 "IFRS S2 보고서 발간으로 어느덧 3년째 이어오고 있는 SK증권의 기후공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됐고, 이는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금융을 실현하고자 하는 SK증권 ESG 경영의 핵심이자 본질"이라며 "이 보고서에 담긴 넷제로 전략과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그 과정에서 마주하게 될 도전과 성과를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성실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